

“가진 것 버리면 마음 채워져”



1997년 가을 연꽃모임 창립당시 고암 스님과 함께



2002년 여름 수재민돕기에 참여한 이정옥 회장



1966. 11. 해인사 수련회에서 성철, 일타, 보성 스님과 함께



1995년 보현봉사회 창립 1주년 기념법회

때만 해도 쑥스럽고 걱정스러워 업무가 나지 않았는데, 벌써 시작한 지가 1년이 다 되어가고 그로 인해 방송에 초대까지 받게 되니 더욱 쑥스러웠다. 연재를 시작할 때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방송국을 찾았다.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왔던 지은아 아나운서가 담당 진행자여서 반가웠다. 진행자는 나의 근황과 바라밀 일기를 통해 소개되었던 나의 이야기들에 대해 물었다. 사실 나는 좋은 시절과 인연을 만나 신문에 연재도 하고 방송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부처님 말씀 따르며 나보다 더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나의 작은 수행이 너무 크게 만들어진 것 같아 부끄럽다. 부처님께 귀의한 불자로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텐데, 그것이 특별한 일도 아니어야 하는 것인데 방송을 하는 내내 쑥스러운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무언가를 바라고 하는 일만 아니라면 불자들끼리 서로 서로의 수행담이나 수행담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스승이 되어주는 기회가 된다면 서로의 이야기를 알리는 것도 좋은 수행의 한 방편이라는 생각이다.”고 했다.

이 회장은 틈틈이 써온 수행담을 2013년 본지에 연재했다. 생활 속에 숨겨져 있는 불교적 가르침들을 꾸밈없이 독자들에게 전했다. 그의 말대로 서로의 수행담을 주고 받는 것이 경을 외우고 교리를 익히는 것만큼 성불로 가는 길 중 하나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77년 ‘연꽃모임’으로 수행의 새로운 길을 열었던 것처럼 그의 수행담 역시 수행의 한 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회장은 인생회향으로 그 글들을 모아 출간을 계획하고 있다. 어렵고 딱딱한 문자가 아닌 생활 속에서 걸어 올린 활구로 가득 찬 그의 수행담이 한국불교 수행의 또 하나의 ‘길’을 열어나가는 것이다.

서로에게 가르침 주는 세상 되길
이 회장은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삼보를 가슴에 새기고,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생각하며 기도를 한다. 깊은 산사에서 모시는 장엄한 예불은 아니지만 이 회장의 새벽 예불은 그 어떤 예불과 기도보다도 신성하고 의미 있는 의식이라 하겠다. 이런 이 회장과 같은 예불이 모이고 모이면 곧 그것이 정토를 여는 것이 아닐까. 불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처처에서 지극한 예불을 모시고 참회와 공부로 가득 찬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면 그것이 정토일 것이라 생각한다.

“법정 스님 말씀대로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남에게 줄 수 있음이 참보시일 것이다. 지인들과 나눌 수 있는 것들은 따로 모아두고 버릴 것은 수거함에 버렸다. 재활용품을 버리고 올라오다 위층에 살고 계시는 팔순 남은 할머니를 만났다. 그 부지런하시고 정정하시던 할머니가 이제는 걸음도 좋지 못하고 안색도 예전만 못하였다. 오랜만이라며 인사를 드리자 할머니 말씀이 ‘나도 얼마 전까지 중풍은 났었는데...’ 하신다. 나는 ‘지금도 중풍이 상입니다.’ 고 답해드렸지만 어쩔 수 없는 시절 인연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그러나 비록 몸은 불편한 모습이지만 말씀 하나하나 함부로 하지 않으시고 생각 하나하나

가 아직도 정정했다. 머지않아 내 모습도 저렇게 될 것이라 생각하니 집안에 아직 남아 있는 물건들을 다시 들여다보게 됐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 보였다. 늘 놓아 버려야 한다고, 비워야 한다고 배우고 다짐하면서 살아왔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했다. 이제부터는 소유하기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삶으로 남은 생을 회향하고 싶다. 그러다보면 가진 것은 줄어들어도 마음은 폭폭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마치 누구나 편히 쉬어갈 수 있게 늘 길을 비워놓은 산처럼 살아야겠다. 좋은 사람 미운 사람 가리지 않고 다 받아주며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차별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산처럼 살고 싶다. 봄이면 꽃피고 새 울며 여름이면 무성한 잎으로 더위를 가려주며, 가을이면 행정색색 단풍잎으로 사람들을 부르고, 겨울에는 마른 솔방울 떨어뜨리며 무정법문 하는 산처럼 살고 싶다.

목은 집을 털어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된 하루였다. 목은 집 속에서 옛날의 기억을 꺼내보듯 한 동안 방치하고 살았던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나로 인해 마음 아파했거나 불편했던 인연이 있었다면, 나 또한 편치 않은 사연들이 있었다면 이참에 참회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 마음 모두에게 가 닿았으면 좋겠다. 목은 집을 정리하며 나의 목은 마음들도 정리해 본다.”

또 한 해가 저문다.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정리할 시간이다. 이 회장의 수행담을 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침을 주는 세상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본다.

박재원 기자 wanholl@hyunbul.com

전법일기

소리 장엄이 중요하다

매주 수요일마다 절 마당은 승용차로 꽉 찬다. 신도들이 복직하는 것을 보고,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들은 무슨 행사가 있는 날이냐고 묻기도 한다. 하긴 한적한 시골 절에 자동차가 몰려드니까 궁금하기도 할 것이다.

이곳에 합창단이 창단된 것은 지난 3월이다. 그러니까 아직 창단 1년이 안 된 새내기 합창단이다. 그렇지만 찬불가에 대한 열성과 관심은 대단하고 진지하다. 지난달에는 부산에서 개최된 전국불교합창제에 초청연합팀으로 참가하여 찬불가에 대한 다양한 열정을 체현하였고 뒤이어 충북불교합창제에서도 아름다운 화음을 연출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찰의 여러 행사에 동참한다고 32명의 단원들이 동봉서주 정신이 없었다. 이렇게 신생

식용 합창단'의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이는 사찰에서 단순히 법회 의식 곡을 부르기 위해 합창단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 사찰 신도들에게 박수 받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 합창단의 실력은 제자리 걸음이 되기 쉽다. 그러므로 단원들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실력을 연마하고 단원으로서 책임감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사실 시골의 작은 절에서 합창단을 창단하여 운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지휘자 급이나 단복 제작 등 크고 작은 지출이 만만치 않아서 재정적으로도 힘들지만 도심의 사찰과 견주어 신도 구성원들이 두텁거나 조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단원 확충에도 애를 먹는다. 그럼에도 이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은 다음의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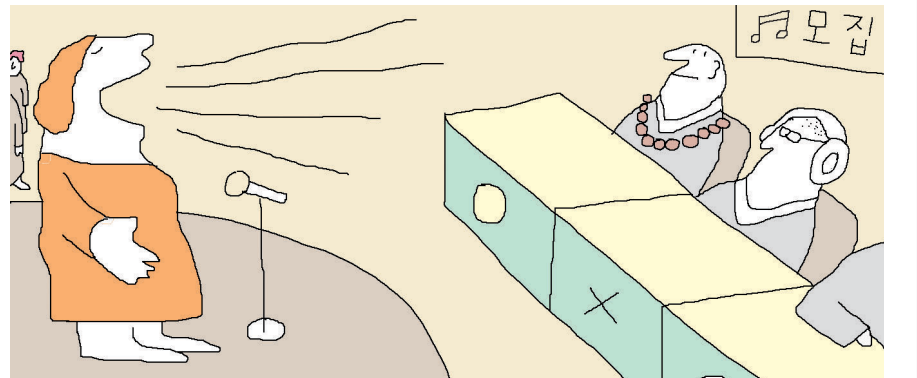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합창단으로서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일정을 소화해 주어서 책임자로서는 무척 흐뭇하고 고맙다.

역사가 짧은 합창단이 무대에 자주 오르며 두 가지의 이점이 있다. 하나는 행사를 통해 단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실력이 부족 향상된다는 것이다.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서 연습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팀워크가 형성되고 친목이 도모되는 효과가 있다. 이것은 단체에 대한 사명과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라서 내실을 공고히 하는 기회도 된다. 그 다음은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자체가 실력을 확인하고 평가받는 자리가 된다는 것이다. 여러 합창단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보고 비교해 보아야 스스로의 평점이 객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전에 제주도 약선사 주지 스님을 만나 차담을 하면서 불교합창단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었다. 성원 스님은 어린이 합창단과 제주불교 여성합창단을 창립하고 성장시킨 주역이다. 불교합창단의 발전은 당해 사찰 주지스님의 노력과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와 내가 의견 일치를 이룬 것은 이제 불교합창단이 ‘의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는 찬불가는 음성공양이다. 향이나 꽃, 과일, 미곡(米穀) 등 불전에 올리는 것을 흔히 6법공양이라고 해서 불자들은 흔쾌히 동참하고 있으나 음성공양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법회가 열릴 때에 꽃과 음악(소리)으로 장엄했다는 경전의 기록은 음성공양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두 번째는 합창단은 대자불사다. 건물을 짓고 나무를 심는 것만이 어찌 불사이겠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찬불가를 부르고 보급하는 것 또한 무형의 불사다. 이것은 합창단의 역할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교회의 성가대는 성도로서의 자긍심도 높지만 그 위치 또한 확고하다. 그것은 찬송이 곧 공음이라는 신념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불교합창단은 법당이 있는 곳이면 조직되어서 필수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왜냐하면 법당을 짓는 것과 동일한 불교중흥의 불사이기 때문이다.

현진 스님 (청원 미야사 주지)

사찰 건축

천년 가람을 이루는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신스틸공법 시공 / 대응전 / 요사채 / 산신각 / 전문시공

스틸한옥의 장점

- ◆ 단열효과가 높고 유지 보수가 쉬우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 ◆ 층수에 관계없이 고층 시공이 가능함. 한옥빌라, 한옥빌딩, 한옥아파트 등
- ◆ 스틸구조에 의해 디자인 면에서도 한옥의 선을 맘껏 살릴 수 있다. 다양한 디자인 한옥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주]성한기업 한중열 합장
부산 사상구 강선로 11번지 / 010-4245-1335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건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1리 58번지